

## 48 건설회사 타일공에서 발생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성별	남성	나이	55세	직종	건설회사 타일공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 1 개요

근로자 ○○○은 약 30년간 아파트, 공장, 빌딩 주택, 상가 등 건설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했다. 2013년 왼쪽 다리 저림 현상이 시작되었고, 이후 손떨림 및 손가락, 발가락 굳음 현상 등이 지속되어 통원치료를 하였다. □대학교 병원에서 정밀 검사 실시한 후 2015년 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 진단받았다.

### 2 작업환경

○○○은 한달 이내의 기간 동안 개인 또는 건설회사의 건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대부분의 공사현장은 개인 건축현장이었고, 평균 3~4일 정도 근무 하였다. 주로 아파트, 공장, 빌딩, 주택, 상가 등 건설현장에서 주로 화장실 벽면의 타일 시공 작업을 하였다. 작업 내용은 본드를 이용하여 화장실 벽면 타일 접착 및 타일 절단, 압착 시멘트 배합 등이었고, 대부분의 작업이 건설 현장의 화장실 내부 타일 작업이었다. 거의 모든 건설 현장에 환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고, 교대 근무는 하지 않았다.

### 3 해부학적 분류

- 신경계질환

### 4 유해인자

- 물리적 요인(중금속)

### 5 의학적 소견

○○○은 2013년부터 왼쪽 다리 저림 현상이 시작되었고, 이후 손떨림 및 손가락, 발가락 굳음 현상 등이 지속되어 통원치료 받았다. 이후 2015년 □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 시행하였고, 그 결과,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으며, 현재 가료 중이다.

##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특이적 가족력이나 과거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병하였다. 30년간 종사해온 아파트 등의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타일 부착 작업은 좁은 공간에서 화기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며,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 백열 전구 등으로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작업하게 되므로, 유해물질에 노출될 경우 일반환경보다 노출량이 높을 수 있다. 타일 부착 등에 사용된 경화제, 접착제 등의 화학 성분에 노출되었으며, 타일의 유약에 사용된 납성분 등으로 인해 납노출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납의 경우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합의의 수준에 이를 만큼 명확하지 않고, 근무 중 납노출에 있어서도 근무 공정에 따른 간접적인 추정임을 감안할 때 근로자 ○○○의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끝.